

# 광양시, 2023년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호응'

### 지역 내 4개 초등학교 312명 대상, 지방세 눈높이 교육 성실 납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중요성 심어주는 기회

광양시는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지역 내 4개 초등학교, 4~5학년생 312명을 대상으로 '2023년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은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성실 납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심어주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의 추천으로 4개 초등학교(14개 학급)를 선정해 ▲10월 5일 성황초등학교(4학년, 4학급 90명)를 시작으로 ▲10월 6일 광양제철남초등학교(5학년, 3학급 79명) ▲11월 15일 광양와우초등학교(4~5학년, 4학급 68명) ▲11월 23일 광양가야초등학교(5학년, 3학급 75명)에서 어린이 눈높이

이에 맞춘 흥미로운 세금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강사는 일선에서 세무 업무를 직접 맡고 있는 광양시 세무직 공무원(이나현 주무관, 남민영 주무관)으로 애니메이션과 퀴즈 등을 활용해 「광양시는 왜 세금을 받나요?」, 「지방세란 무엇인가요?」란 주제로 세금의 종류, 납부 방법 및 광양시에서 세금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납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들이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시에서 자체 제작한 세금 보드게임인 「세금블록」과 지방세 학습만화인 「세돌이 세순이와 함께 떠나는 지방세 여행」을 제공했다.

광양가야초등학교 학생은 "지금까지 세금에



대해 잘 몰랐는데 퀴즈를 풀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광양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광양시 살림을 꾸려나간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강기 세종과장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광양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며 "더 많은 학생이 올바른 납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 순천시립신대도서관, 새 단장 후 시민의 곁으로

### 내일 임시 개관...12월 9일 개관식 열려

순천시는 신축 확장 이전하는 순천시립신대도서관의 운영 준비를 마치고, 오는 28일 새롭게 단장한 도서관을 공개한다.

2021년 10월 좌야초등학교 인근에 착공된 순천시립신대도서관은 총 사업비 약 186억 원(국비 72, 시비 114억)이 투입되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681㎡ 규모로 건립됐다. 이는 전남 최대 규모로 신대지구와 인근 지역을 아우르며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28일 임시 개관(9시~19시)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개관 준비를 거쳐 12월 9일 11시 개관식과 함께 공식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내부는 ▲어린이가족공간(어린이가족실, 유아자료실, 야외 책놀이터) ▲자료열람공간(자료실, 간행물실, 청소년 출몰구역, 책마루) ▲디지털정보공간(미디어실, 스마트존, 오디오북부스) ▲문화창작공간(울림극장, 열린강당, 별별공작실, 요리조리실, 예체능실) ▲독서확장공간(물의정원, 잔디광장, 옥상정원) 등 이용자 중심의 친화 공간으로 꾸며진다.

순천=김승호기자



# 고흥군-(사)대한조산협회-(사)마리안느와 마가렛 선양사업 협력 및 나눔연수원 이용 업무협약 체결

고흥군은 24일 고흥군청 흉양홀에서 (사)대한조산협회, (사)마리안느와 마가렛과 함께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 협력 및 나눔연수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공영민 고흥군수, 이순욱 (사)대한조산협회회장과 (사)마리안느와 마가렛 임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협약을 통해 두 분 간호사의 숭고한 정신 전파, 선양사업과 봉사대상 축제화를 통한 선한 영향력 확산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특히, 봉사대상 시상식에 전국의 조산협회 회원들이 참여하고 협회 행사나 조산사 교육(연수) 장소로 소록도 나눔연수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해 고흥군과 연수원의 전국적 인지도

상승 및 선양사업 홍보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사)대한조산협회는 제3회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간호부문 수상자로 이순욱 회장이 선정되면서 고흥군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협회 측에서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이타적 삶과 참된 정신을 기리고 널리 전파하는 데 동참하고, 두 분의 선양사업에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면서 이번 협약식을 체결하게 됐다.

군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사)대한조산협회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앞으로 상호 발전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보성군,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조성

보성군은 지난 23일 조성면에 '국공립 초동친구하나어린이집'이 이전 신축 개원을 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와 하나은행 전남영업그룹 양동원 부행장을 비롯한 지역 보육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공립 초동친구하나어린이집은 지난 2021년 5월 하나금융그룹이 주관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공모사업인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의 69번째 어린이집으로 선정돼 신축을 추진하고 올해 2월 착공해 11월 완공됐다.

총 사업비는 하나금융그룹이 지원한 8억여 원과 국·도·군비 9억여 원을 포함한 17억여 원이다.

연면적 391㎡의 지상 1층 규모로 보육실 4개와 유희실, 교사실, 야외 놀이터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친환경 건축자재와 일조량을 고려한 공간에 지어져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아이들이 귀한 요즘 시대에 국공립 초동친구하나어린이집이 개원하게 돼 매우 뜻깊다"라며 "아이들의 보석 같은 눈망울이 보다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보성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 전남아트박람회 ART 061, 여수세계박람회장 오늘 열려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27일부터 29일까지 전남 문화예술 브랜드 육성을 위한 전남아트박람회 'ART 061'이 열려 여수시가 문화도시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전남 문화예술 콘텐츠의 글로벌 성장 기회를 마련하고 청년 예술인의 수도권 진출과 스타작가 양성을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지역예술인에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첫날인 27일 저녁 6시 엑스포 컨벤션센터 엑스포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화려한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이어 저녁 7시에는 청년 예술인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라이징스타 오디션이 펼쳐진다.

또 28일과 29일에는 전남 문화예술 브랜드 R&D 토크쇼가 진행된다. 특히, 29일에는 유명 셀럽 홍석천이 무대에 오른다.

아울러 29일 오후 2시에는 서울 육성과 연계한 전남 작가들의 미술품 경매가 있어 예술작품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사기간 3일간 엑스포 컨벤션센터 전시로 비에서는 전남 갤러리, 작가, 공연단체, 기획사 등 시간·공연분야 등 콘텐츠 문화예술 부스 25동 또한 운영된다.

여수=기동취재본부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